

# 동아닷컴 등 출판사에 '침해의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 과거 사용료 소급 청구... '대중의 독서문화 위축' 우려도 위탁관리체제나 온라인 링크 방식 등 대안 제기

언론사닷컴이 저작권 권리행사에 적극 나서고 있어 출판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언론사닷컴은 최근 기존에 사전 동의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자사의 온라인뉴스 콘텐츠를 사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침해의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출판사에 대해서는 인터넷 신문에 게시된 서평 등을 출판사 및 서점의 자사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여 자사 도서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언론사닷컴이 서평의 무단 전제에 대한 이용료 소급 지급을 요구한 출판사는 문학동네와 더난출판 두 곳이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사태가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출판계의 기대와 달리 이미 언론사닷컴들도 권리행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대항하고 있는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동아닷컴, 한국경제를 비롯해 현재 5곳의 언론사닷컴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뉴스 콘텐츠 저작권 권리행사에 나서고 있다"고 귀띔했다. 특히 동아닷컴, 한국경제를 제외한 3곳의 언론사닷컴은 최근에 합류한 경우로 그동안 상황을 지켜본 나머지 언론사닷컴들도 같은 권리행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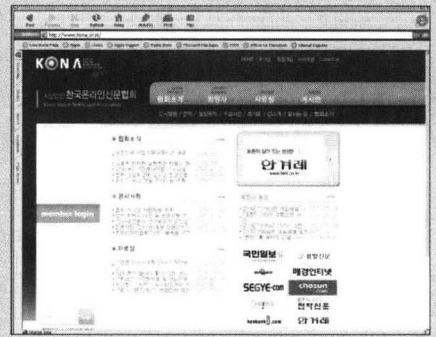
기본적으로 언론사닷컴은 이런 권리 행사를 통해 올바른 저작권문화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11개 온라인 신문사가 가입해있는 온라인신문협회 측은 "온라인뉴스 콘텐츠의 사용을 막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만 영리목적이 추가된다면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의 장본인격인 동아닷컴 정영석 대리도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해왔다"며 "근본적인 목적은 저작권 권리 행사를 통해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보다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건전한 저작권 문화를 확립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한 출판인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

는 출판사가 이유야 어쨌든 사전 동의 없이 저작물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고 개선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온라인뉴스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상호

이해나 규준이 확립되지 않은 현실에서 이처럼 갑작스런 권리행사는 지나치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출판사는 언론사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언론사는 출판사의 책의 홍보를 해주는 '현실적 관계'를 무시한 채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자칫 출판사와 언론사와의 '상생구도'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특히 독서문화 진작의 필요성이 높은 시점에서 언론사를 통해 생산되던 책정보가 자취를 감출 경우 사회적 요구와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상호간에 납득할 만한 해결방안과 규준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최경수 연구실장은 "저작권법상 인용의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기사나 서평을 정리하여 올리거나, 출판협회가 출판사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신문사들과 약정을 맺어 포괄계약 방식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식"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개별 신문사를 상대하는 불편을 덜고 저작권 침해의 소지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실장은 특히 "신문사 웹사이트에 직접 링크를 걸어 해당 화면이나 자료로 바로 연결할 경우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며 "가급적 단순 링크 방식, 즉 새창을 띄우거나 현재 화면을 대체하는 화면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택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한민**



신동섭 기자